

지스트, '앤트맨' 최재천 교수 특강 개최

- 5월 3일(수) 초청... <다윈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> 주제로 강연 개최



▲ 최재천 교수가 특별초청강연을 진행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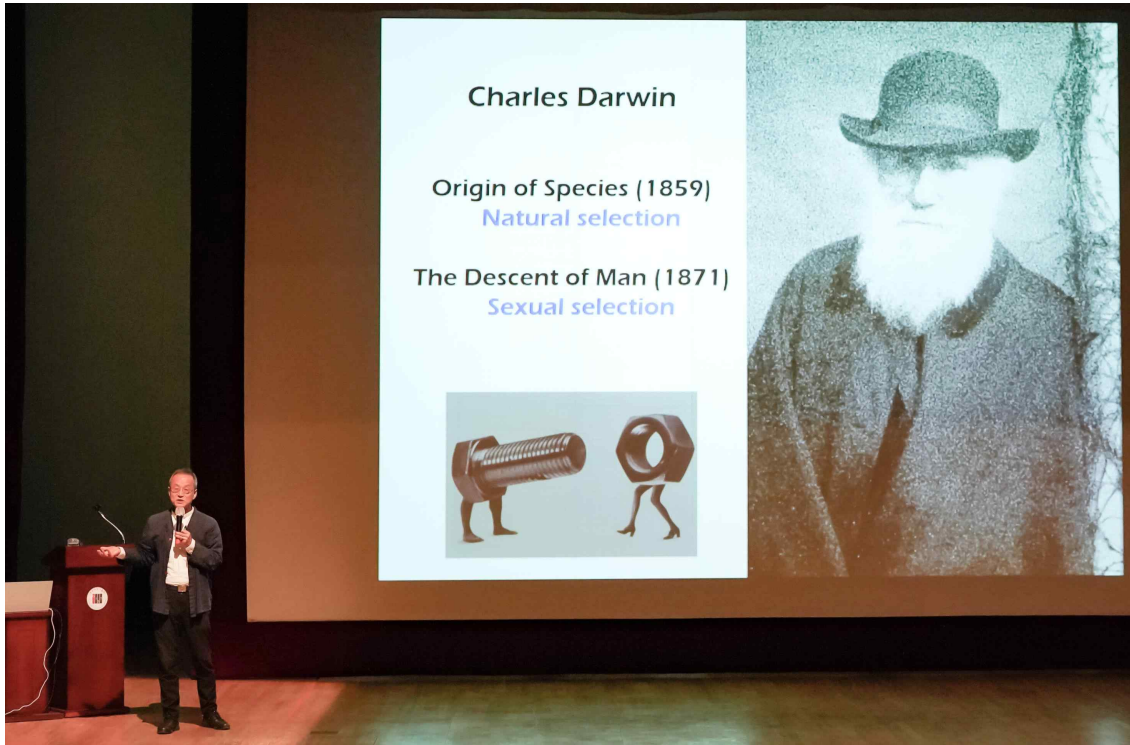
지스트(광주과학기술원, 총장직무대행 박래길)가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 온 진화생물학자인 **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(前국립생태원장)**를 초청해 <다윈의 어깨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>을 주제로 **특별초청강연을 개최했다.**

개미 연구로 '**앤트맨**'이란 별명을 얻은 최 교수는 **5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'최재천의 아마존'**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구자다. 진화생물학과 생태학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「다윈의 사도들」, 「다윈지능」, 「과학자의 서재」 등 왕성한 집필 활동으로 진화생물학과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알렸고,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국민훈장 동백장, 2023년 청암교육상 등을 수상했다.

대외협력팀과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가 주최하고 '**우주환경활용 의생명과학기반기술 연구 융합클러스터(클러스터장 생명과학부 조경래 교수)**'가 주관한 이날 특강은 300여 명의 교직원과 학생, 지역민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일(수) 지스트 행정동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.

최 교수는 강연에서 **다윈의 진화론의 중요성**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다윈의 진화론을 토대로 현재 사회에 닥친 **금융위기, 학문의 위기, 환경의 위기** 등을 극복할 방법을 제안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.

특히 진화론 없이는 생물학의 어떤 것도 이해될 수 없다고 한 진화생물학자 도브잔스키의 말을 응용해 현대사회에서는 “진화의 관점을 떠나서는 삶의 어떤 것도 이해될 수 없다”고 강조해 청중들에게 많은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.



▲ 최재천 교수가 다윈의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다.

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이 최 교수와 다양한 의견과 견해를 나누며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.

이번 특강을 준비한 조경래 교수는 “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지스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전공과 상관없이 과학자로서 진화생물학적 관점으로 인간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소양을 가꾸고 기를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신 최재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.”고 말했다.

박지용 기획처장(대외협력처장 겸무)은 “이번 특별초청 강연을 통해 지스트 구성원과 지역민이 다윈과 진화론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란다”며, “앞으로도 지스트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강연을 정기적으로 마련해서 학문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기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겠다”고 밝혔다.